

교육교부금 개편 본격화... “지원 확대” vs “재배분 반대”

정부 “변동성 줄이고 지원 확대”
영유아·대학·평생교육 재원 쟁점
교육계 “초·중·고 재정 축소 우려”
학생 줄어도 학교 역할 확대 지속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교육재정의 새 물질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뉴시스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를 둘러싸고 교육재정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예산 당국은 교부금 변동성을 줄이고 영유아·대학·평생교육까지 재정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계는 지원 범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고 교육재정을 재배분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교육재정의 새 물질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 중심으로 배정하는 재원이다.

◆ “축소 아니다” vs “재배분 안 돼”

예산 당국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보더라도 초·중·고 학생 1인당 지원 수준을 낮추지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흥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논의의 핵심은 세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 변동

성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부문별 균형 성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며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는 더 단단히 하고, 영유아·대학·평생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교육재정의 기본 안전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범위가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까지 넓어진 만큼, 안정적 재원 틀 안에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 사용자 확대

논의가 실제로는 초·중·고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유아 고등교육·평생교육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기존 초·중·고 교육재정에서 떼어내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병역 자원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세대 간 계약”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곧 교육

수요 감소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과거 학교가 가르치는 공간이었다면 현재는 돌봄, 복지, 학생 정서 지원, 안전지원까지 역할이 확대됐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축소를 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영유아·대학·평생교육 재원 필요

교부금 사용 범위를 영유아·대학·평생교육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유재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대학은 국가 기술 경쟁력의 최전방에 있지만 재정은 영양실조 상태”라며 “2030년

까지 연장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만으로는 대학이 20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생교육 재정 부족을 지적했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40대 가장도, 60대 노인도 미래가 있다”며 성인 역량 저하에 대응할 평생교육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영유아 교육도 교부금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황옥경 유아정책연구소장은 “교부금은 학교 중심을 벗어나 생애 초기 영유아까지 포괄하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질 향상에 충실하도록 재정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부금 산정 방식에 학령인구와 국가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개편론도 이어졌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부금 구조를 자녀 교육비 자동이체에 비유하며, 초·중·고 자녀가 줄었는데도 같은 비율로 더 많은 돈을 보내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경기도, AI로 화재 조기감지망 구축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 공모 선정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사업에 '산업단지·물류시설 AI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돼 2027년 12월까지 AI 기반 광역화재안전망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9억 원을 포함해 총 98억 원이 투입되며, 산업단지와 물류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AI 기반 화재 조기감지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불꽃과 연기, 가스 누출 등 화재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적용해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감지 정보는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전송돼 위험도를 분석하고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한다.

실증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수원·화성·이천시와 AI 전문기업이 참여하며, 수원 텔타플렉스와 화성 향남제약단지·전통시장, 이천 산업·패션·물류단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AI 기반 소방로봇을 활용한 화재 대응 실증도 함께 진행한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기술을 행정 현장에 적극 적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AI 행정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희 기자 dkim@

서울, 틈새보육 4곳 추가

서울시가 야간·휴일이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자를 위해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 4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용 가능한 365일 어린이집은 15곳,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25곳 등 총 40곳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신규 어린이집 4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365일 어린이집에는 강북구 송천동 어린이집과 금천구 새길어린이집이 새로 포함됐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에는 구로구 디지털퓨터 어린이집과 서초구 서초한별어린이집이 지정됐다.

365일 15곳·시간제 25곳 운영
야간·휴일 보육 공백 40곳 대응

365일 어린이집은 신청,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맞벌이, 고대근무, 주말근무 등으로 생기는 보육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36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23년 939명에서 2024년 1458명, 2025년 1657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주말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주말어린이집도 별도로 10곳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전문기술석사 진학 길 넓힌다

삼육대, 광주보건대와 박사 연계
보건의료 연구·교육 인재 양성 협력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마친 보건의료 분야 인재가 일반대학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마련된다.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중)는 광주보건대와 박사과정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은 광주보건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자를 삼육대 박사과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교육 인재로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전문대학에서도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석사 수준 과정으로, 이수자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보건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이수자가 삼육대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협약식은 지난 6일 삼육대 백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삼육대에서는 손애리 대학원장, 황윤정 부원장, 송장호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광주보건대에서는 이동진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 겸 물리치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동 학술대회와 세미나 개최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보건의료 분야 교육과 연구 역량을 공유해 실무와 연구



(왼쪽부터) 손애리 삼육대 대학원장, 이동진 광주보건대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 /삼육대

를 함께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손애리 삼육대 대학원장은 “광주보건대의 석사 인재들이 삼육대에서 학문적 깊이를 더해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광주보건대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체계적인 학문적 성장 경로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보건대는 보건의료 전문대학으로, 지난해 4개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받았다.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56

7월 9일 (木)
음력: 5월 25일

수도권 날씨 24~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백령도 21/25, 파주 23/26, 인천 24/26, 수원 24/27, 평택 24/28, 연천 23/26, 동두천 23/26, 가평 22/26, 서울 24/27, 양평 24/27, 용인 24/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 갈리바프 “美, MOU 수차례 위반… 협박 시대 끝났다”
▲日정부, 아베 4주기 맞이해 “아베 성과 바탕으로 경제·외교·안보 구축” /사진 뉴시스

▲美 헤그세스 국방장관, 첫 이스라엘 방문… 네 타나후와 회동
▲트럼프 “그린란드美가 통제해야”… 유럽엔 “미군 뺄 수도”

▲쿠웨이트·카타르서 공습경보… “미사일 및 드론 위협에 대응 중”
▲“레바논 대통령, 21일 미국 방문… 백악관 초청 받아”